도이치말에서의 부정유형에 대하여

이상욱(고려대)

1. 들어가는 말

'부정하기' negieren, verneinen일반적으로 의사소통과 인식을 위한 인간의 욕구에 따른 행위로 이해된다. 이러한 욕구만족을 위해 개별언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언어학에서 다루어지는 부정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부정을 위한 수단을 지닌 부정적 언어현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1].

다른 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말에서도 이러한 수단과 방법은 대부분의 문법책들에서 "Negation", 혹은 "Verneinung"과 같은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주요대상은 소위 부정어들이며, 그것들이 지닌 통사적 그리고/혹은 의미론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정어 'nicht' 는 그것이 지닌 통사적 특성 - 다른 말과는 달리 도이치말에서 nicht는 비교적 자유롭게 문장 안에 위치할 수 있다 - 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일반적이며, 통일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도이치말에서의 부정과 관련하여 부정어 nicht 가 지닌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분류되어온 부정의 두 가지 유형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관점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

1) 부정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는 70년대까지는 대부분이 부정적 언어현상을 문법적 관점, 즉 형태적, 통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7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에 언어학에서 다루어진 부정에 관한 연구는 강하게 화용론적-의사소통적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로써 부정에 관한 개념의 재정리가 요구되었으며, 그 연구대상, 즉 부정적 언어현상들의 개념은, 문법적 관점에서의 부정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단순히 부정어를 포함한 문장들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2. 부분부정Sondernegation/전체부정Satznegation

70년대까지 언어학에서 부정이란 주제를 다룬 연구들 중 대부분은 문법체계 안에서 언어의 부정적 현상들을 부정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해답을 부정적 언어현상, 즉 부정문의 통사적 특성들의 분석을 통해 얻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연구의 출발점은 자연스럽게 부정어였다.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부정어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통사적, 분포적 특성들과, 그것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 (부정어의 의미영역)이다. 다시 말해 문장 안에서의 부정어의 위치들이 부정어의 의미적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다. 그런 다음 부정어의 부정영역에 기초하여 부정어들이 지닌 분포적 특성들을 규칙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이미 서술된 전체가 부정되는 것 negatio 과 특별히 서술의 어느 한 부분만이 부정되는 것 privatio[2]로 구별하였던[3] 고대의 부정에 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정적 언어현상, 즉 부정어가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분법이 부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된,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논리학에서 모든 부정적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서술된 것 모두가 부정되는 전체부정 하나로 설명된다. 부정적 언어표현들은 모두 '...의 경우가 아니다' Es ist nicht der Fall, daß p' (p: Proposition)로 해석되며, 이것만이 유일하게 모든 긍정적 언어 표현들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60/70년대 통사적-의미론적 방법론이 성행했던 때에 나온 부정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들에서는 여러 해결방법들이 제시된다. 클리마는 부정문을 전체부정 Satznegation 과 구성소부정 Konstituentennegation 으로 구분한다[4]. 이 두 부정들은 구성소

---

2)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서술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은 단지 긍정적 서술의 한 부분일 뿐이다.

3) Heinemann, W.(1983): Negation und Negierung. Handlungstheoretische Aspekte einer linguistischen Kategorie. Leipzig; Lee, S. W.(1999): Die Negati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Eine konfrontative Untersuchung. Bochum. 참조

4) Klima, E. S.(1964): "Negation in English." In: J. A. Fodor/J. J. Katz(Hg.):

구조 수형도Konstituentenstrukturstammbaum에서 서로 달리 자리 매김 된 부정어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정의 범위, 즉 부정의 의미영역 또한 그것에 따라 서로 달리 해석되어진다. 클리마에 의해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나뉘는 부정에 관한 전통적 설명이 보다 확고하고 정교해졌다. 이와는 달리 슈티켈은 부정현상을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하나의 부정, 즉 전체부정만을 가정하였다.[5] 모든 부정적 언어현상들은 심층구조r에서 전체부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부분부정은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진 전체부정의 변이체 kontextuell determinierte Variante der Satznegation"[6]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부정표현들과 관련하여 단지 하나의 부정형식을 가정한 슈티켈의 견해는 통사적-의미론적 관점에서조차 비판을 받는다. 부정어는 심층구조에서는 언제나 전체 문장에 관계하는 구성 소이며, 표층구조에서 비로써 자신의 자리가 결정된다는 그의 가정을 하이돌프가 반대한다.[7] 하이돌프는 모든 긍정적 언어표현들은 자신에 대응하는 부정적 언어표현이 단지 하나뿐이라고 보지 않았다. 하나의 긍정적 표현에 동일한 부정어를 지닌 여러 유형의 부정문들이 대응될 수 있으며, 이때 이 부정의 유형들은 언제나 통사론적, 분포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부정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언제나 전체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264쪽 이하 참조.

5) Stickel, G.(1970) 151쪽 이하 및 Lee, S. W.(1999), 45 쪽 이하 참조.

6) Stickel, G.(1970): Untersuchnungen zur Negation im Deutschen. Braunschweig. 153 쪽.

7) Heidolph, K. E.(1970): "Zur Bedeutung negativer Sätze." In: M. Bierwisch./K. E. Heidolph.(Hg.): Progress in Linguistics. Den Haag. 90쪽 이하 참조. 슈티켈 또한 자신의 197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1970년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 즉 단지 하나의 부정유형만을 가정한 견해를 포기한다. 그는 더 이상 부정적 언어적 표현에 단지 하나의 긍정적 언어적 표현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문에서 부정어는 전체 의미구조에서 단지 한 부분에 관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Stickel, G.(1975):"Einige syntaktische und pragmatische Aspekte der Negation." In: H. Weinrich.(Hg.): Positionen der Negativität. München. 23쪽 이하 참조.

그러나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 하나의 부정만을 가정한 견해가 통사론적-의미론적 관점에서조차 비판되었다해도, 이것이 전통적으로 행하여진 그와 같은 이분법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에 와서 그와 같은 이분법은 의사소통적, 화용론적 관점에서 비판되어진다.[8]

여기서는 먼저 전통적으로 행하여진 통사적, 의미론적 입장에서 부정의 구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의사소통적,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비판 그리고 그와 같은 비판이 갖는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도이치말에서 부정어 nicht를 지닌 부정문에서 nicht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 분류된 부정의 두 유형들,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9]

"전체부정에서 부정어는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 혹은 사건 전체를 부정한다. 여기서는 대부분 상황진술이 주어진다. 부분부정에서 부정되는 것은 낱말의 내용이다. 부정어는 부가어로서 부정하고자 낱말 앞에 위치한다."

특히 1984년 출간된 4판에서는, 비록 완벽하고,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보다 정교하게 부정의 유형들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정을 명백하게 전체부정과 부분부정 두 가지로 명백하게 구분한 2, 3판과는 달리 중간영역을 인정하고 있다:[10]

"전체부정에서는 서술 전체가 부정된다. 부분부정에서는 서술 전체는 긍정이며, 부정되는 부분만이 긍정에서 제외된다.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은 그러나 겹칠 수 있다. 이것은 서술어 *sein*에서는 종종 발생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서도 또한 볼 수 있다: Ich habe die Courage, du aber nicht[...]."

헬비히/부샤는 전체부정/부분부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11]

---

8) 의사소통적 입장에서 시도된 언어적 부정현상의 설명은 Harweg(1975), Sennekamp (1979), Heinemann(198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9) Duden(1966):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d.4., 2. Auflage. 603 쪽.

10) Duden(1984):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d.4., 4. Aufl., Mannheim. 641쪽 이하 참조.

"*전체부정*은 언제나 전체서술(다시 말해 주어-서술어의 결합)에 관계한다; 한정동사가 부정되며, 이로써 동시에 문장전체가 부정된다. 이와는 달리 *부분부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이루는 부분들과 관계한다. 부분부정은 이 경우 부가적 기능을 갖게되며, 부정되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부분부정에서는 문장성분전체 뿐만 아니라, 낱말 또는 문장성분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만이 부정된다."

도이치말에서 부정의 영역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된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도이치말에서 지닌 부정어 nicht 가 지닌 통사적 특성에 있다:

1. 우리말의 부정접두사 안/아니, 영어에서의 부정어 not 등과는 달리 도이치말에서 부정어 nicht는 문장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12] 부정어 nicht 는 부정문에서 비록 모든 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 나타난다. 이때 nicht 가 문장의 어디에서 자리매김 되는가에 따라 의미적 차이가 발생한다. 아래의 예문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13]

(1) Nicht **er** legt das Kind auf den Balkon.
(2) *Er nicht legt das Kind auf den Balkon.
(3) Er legt nicht das **Kind** auf den Balkon.
(4) *Er legt das nicht Kind auf den Balkon.
(5) Er legt das Kind **nicht** auf den Balkon.
(6) *Er legt das Kind auf nicht den Balkon.
(7) *Er legt das Kind auf den nicht Balkon.
(8) Er legt das Kind auf den Balkon **nicht**.

---

11) Hlbig, G./Buscha, J.(1970/1991):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13. Aufl. Leipzig. 517 쪽.
12) nicht의 분포적 특성에 관해서는 Helbig, G./Albrecht, H.(1990): Die Negation. Leipzig. 5. unveränd. Aufl. 15쪽 이하 참조.
13) 여기서 진한 부분은 강하게 발음되는 것을, 별표(*)는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표시한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부정어 nicht 는 도이치말 부정문 어디에서나 완전히 자유롭게 쓰여지지는 않는다. 문장 (2), (4), (6), (7)은 nicht의 위치 때문에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인 되었지만, 그러나 문장 (1), (3), (5), (8)은 문법적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장들에서 부정어 nicht 의 사용된 위치에 따라 상당한 내용적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문장 (1), (3), (8)에서는 부정어 nicht가 부정하고자하는 부분 바로 앞에 위치하여, 문장을 이루는 각기 다른 부분들이 부정되고 있다. 문장 (5)의 경우,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문장(8)의 의미와 가깝게 해석되지만(전체부정), 그러나 또한 이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부분부정).

위의 예문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이치말에서 나타나는 부정어 nicht는 문장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무원칙하게 쓰여지지는 않는다. nicht의 문장에서의 자리 매김은 이와는 달리 규칙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리 매김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쓰여진 부정어 nicht를 갖는 부정문들을 도이치말을 모국어로 갖는 사람이 듣고서, 그 내용적 변화를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규칙화될 수 있다. 부정어 nicht의 문장에서 쓰여진 자리에 따른 부정문의 통사적 변이체가 문법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그것과 결합된 내용에 의지해야한다.

간단히 말해, 부정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문장에서 차지하는 nicht의 위치가 문법적인지, 비문법적이지를 구분하는 통사적, 표현적 법칙들과 문법적으로 판단된, 분포적 차이를 보이는 부정어 nicht를 지닌 부정문들을 내용적으로 나누는 법칙들을 서로 구별해야 한다. 전체부정/부분부정의 구분은 바로 이러한 부정문의 변이체들의 내용을 나누는 법칙에 따른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것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부정어 nicht는 부정문에서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정문에서 부정어 nicht에 의한 부정범위의 변화는 곧 문장의 의미변화를 말한다.

셋째, 부정문에서 차지하는 부정어 nicht의 위치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적 변화들은 nicht가 지닌 영향권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nicht의 문장에서의 자리 매김, 영향권의 범위 그리고 부정범위의 변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문장내용과의 상관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넷째, 부정어 nicht의 이러한 다양한 영향권에 따라 부정은 전통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기본유형인 전체부정/부분부정으로 나뉘어진다.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은 내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앞서 든 예문들에서 보듯이 nicht의 영향권은 그것의 문장 안에서의 자리 매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을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구분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nicht의 여러 가지 가능한 위치들을 정돈하고자함에 있다.

그러나 도이치말에서 부정어 nicht가 지닌 문장 안에서의 자리 매김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분부정의 경우 부정어 nicht는 부정하고자 하는 부분 바로 앞에 위치하며, 전체부정에서는 문장의 맨 뒤에 자리 매김되는) 부정문의 의미적 유형을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분류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정어 nicht를 지닌 수많은 부정문들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량어(Quantor)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문들은 문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정어 nicht의 위치하나 만으로는 결코 부정의 범위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다:

(9) Viele Schüler habe ich nicht kennengelernt

부정문 (9)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9)a Es sind viele Schüler, die ich nicht kennengelernt habe.
(9)b Es gibt Schüler, die ich kennengelernt habe, aber die Zahl der Schüler ist nicht viel.

부정문 (9)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세이다. 문장에 주어진 강세가 부정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않은 예문 (1)에서와는 달리 문장(9)는 강세가 어디에 주어지는가에 따라 커다란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10) Viele Schüler habe ich **nicht** kennengelernt.
(11) **Viele** Schüler habe ich **nicht** kennengelernt.

위의 문장 (10), (11)은 서로 달리 주어진 강세에 따라 내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문장(10)은 (9)a의 의미에, 문장 (11)은 (9)b의 의미에 해당한다. 또한 아래 예문

(12) Ich habe **nicht** viele Schüler kennengelernt.

은 일반적으로 (11)과 의미적으로 매우 가깝게 해석할 수 있으나, 결코 (10)의 내용에 대해 가정할 수 있는 가능한 표현적 변이체로는 볼 수 없다.

부정문에서 nicht가 지닌 통사적 특성만으로 그 내용이 분명하게 해석되기 어려운 점은 함께 쓰여진 다른 문장성분들이 지닌 통사적 성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장 (5)에서 부정어 nicht는 문장 (1), (3)과는 달리 전적으로 auf den Balkon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도 부정의 범위의 해석을 위해서는 nicht의 자리 매김과 주어진 강세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문의 내용을 nicht가 지닌 통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전체부정/부분부정은 부정적 표현들이 지닌 다양성 모두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부정현상의 설명을 위한 이분법은 의사소통적-화용론적 관점에서 비판받는다.[14]

---

14) Nussbaumer/Sitta(1986)는 부정의 언어적 현상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된 전체부정/부분부정은 따라서 좀더 수정된 형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부정문의 의미유형을 더 세분화시킬 때, 수많은 부정적 언어표현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부정문에서 부정어 nicht가 지닌 작용 범위Wirkungsbereich와 작용유형Wirkungsart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전통적 개념에서의 전체부정/부분부정은 내용적(의미적)인 것과 표현적(통사

3. 의사소통적 관점에서의 부정의 개념

전체부정/부분부정으로 나눈 전통적인 이분법은 부정현상을 의사소통적-화용론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하는 이들로부터 특히 심한 비판을 받는다. 그들은 부정현상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혹은 논리적-의미론적 개념이 취약점을 보여주는 곳에서 화용론적-언어 행위론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정성의 개념을 "단순히 문제가 되는 문장들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표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문장들을 갖고서 수행하는 행위방식"[15]에서 찾는다. 부정문들을 근본적으로 문법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려는, 특히 통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전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의상소통적-화용론적 해결방법은 "언어적 의사소통적 행위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행동적 범주로써 부정하기"[16]의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의사소통행위의 당사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부정하기는 의사소통행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혹은 부분적 대립의 관계"[17]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현상을 언어 행위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들은, 각자 약간의 차이는 보이긴 해도, 부정을 하나의 봉쇄행위로 본다:[18]

적)인 것을 분명하게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다. 내용적 관점에서 전체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구조의 설명이, 언어 표현적 관점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의 설명이 전제되어야한다고 한다. 특히 부정현상의 설명을 위해서, 통사적 문장은 하나 이상의 의미적 문장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전체부정을 완전한 전체부정 volle Satznegation과 축소된 전체부정reduzierte Satznegation으로 세분화한다. Nussbaumer, M./Sitta, H.(1986):"Neuere Arbeiten zur Negation im Deutschen." In: Deutsche Sprache 14. 351쪽 이하 참조.

15) Falkenberg, G.(1985): "Negation und Verneinung." In: M. Bierwisch./R. Vogt (Hg.):Sprachtheorie, Pragmatik, Interdiszipliäres. 146 쪽.

16) Brütsch, E.(1986):"Was heißt hier negativ?"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4. 192 쪽.

17) 같은 책, 196쪽.

18) Heidolph, K. E.(1970): "Zur Bedeutung negativer Sätze" In: M. Bierwisch/K. E. Heidolph(ed.): Progress in Linguistics. A Collection of Papers. The Hague.

"적어도 낱말 혹은 문장과 같은 의미에서는, 부정요소 자체는 그러나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처리에서 봉쇄작용에 해당한다".

부정은 기대를 거절하는 것으로 Instruktions-Syntax(지시통사론)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하기'는 언제나 곧 거부되어질 긍정적 예상을 전제로 한다. 부정하기에는 처음으로 기대가 형성되는 긍정적 사전지식을 항상 전제된다.[19]

통사론적, 논리-의미론적 관점에서의 부정의 해석에서는 논리적-의미론적 단위로서 가정되었다. 의사소통적 설명에서 부정하기는 그러나 앞서 주어진 사실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입장을 표현하는 화용론적 단위이다.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부정의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말하는 이는 앞서 행해진 진술이 부당한 것임을 선언하기도 한다. 그밖에 말하는 이는 부정의 표시를 대화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의 표시는 대화 당사자들 간에 일어난 의견 불일치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앞서 대화 상대가 표현한 것에 대한 말하는 이의 입장의 표현이다. 나타날 수 있다.

의사소통적-화용론적 관점에서는 부정현상을 전체부정/부분부정과 같은 직접적인 구분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행하여지는 의사소통에서 부정하기 행위는 항상 단지 실제로 언어화된 내용이 부정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에서의 부분부정은 문장의 한 부분에 이미 포함되어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로 해석된다. 이것은 마치 단 하나의 서술만이 실현되는 실제의 문장에서 기타 다른 서술은 분사화되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이네만은 이와 같은 부분적 부정을 부정적 표현이 지닌 의사 소통적 기능을 부정하기행위가 지닌 부수적 기능으로 취급한다. 이 기능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취급되는 언어행위를 이루는 어떤 한 부분에 관계한다. 이와는 달리 부정하기행위가 지닌 본래의 기능은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전

---

101 쪽.

19) Weinrich, H.(1975): "Negation in der Syntax und Semantik" In: H. Weinrich (Hg.): Positionen der Negativität. Müncnen. 53쪽 이하 참조.

체 문장의 술어를 부정하는 것이다:[20]

(13) Ich verspreche nicht, zu kommen.
(14) Ich verspreche, nicht zu kommen
(15) Ich habe viele Bücher nicht gelesen.
(16) Ich habe nicht viele Bücher gelesen.

실제의 언어행위에서 서로 다른 선행 문을 갖는 (13), (14)사이에서 의미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예문 (13)는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100% 확실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문 (14)는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으며, 대화 상대방은 그것을 완전히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14)에서는 (13)에서와는 달리, 전체문장의 술어가 의미하는 것은 부정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을 사용하여 앞선 표현된 내용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부정하기로 행위로 볼 수 없다. 예문 (14)는 전체구조 중 일 부분이 부정되었어도 긍정을 표현한다. 여기서는 부정의 요소가 긍정문이 지닌 기본성격을 제한하기는 해도 모두 제거할 수는 없기에, 예문 (14) 는 결코 부정하기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문 (13)-(16)에서와 같이 보통의 억양에서도 부정어 nicht의 의미적 범위를 쉽게 추론해 낼 수 있다. nicht가 지닌 의미적 범위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부정의 분류가 그러나 nicht가 차지한 문장에서의 위치에만 의지해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21]

(17) Mein Freund kommt nicht nach Leipzig.
(18) Mein Freund kommt nicht nach Leipzig, weil er mich besuchen will, sondern weil er ins Theater möchte.

예문 (17)은 일반적으로 전체부정, 즉 술어부정으로, 예문 (18)은 비록

20) Heinemann, W.(1983), 135쪽 이하 참조.
21) Helbig, G.(1985), 59쪽 이하 참조.

(17)에서와 같은 위치에 nicht가 자리 매김되었어도, 부분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8)에서는 (17)에서와는 달리 주절의 술어는 부정되지 않는다:

(18)a Mein Freund kommt nach Leipzig, nicht (deshalb) weil ...

의사소통적-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부정의 해석에서는 그러나 더 이상 전체부정/부분부정과 같은 분류는 불필요한 것인가? 잘라 말해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전체부정을 부정으로 부분부정은 성질결여 취급한 논리적-의미론적 관점이나[22], 전체 술어의 부정을 부정하기로 보았으나, 문장 부분의 부정은 긍정으로 본 의사소통적 관점 모두에서 전체부정/부분부정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단지 용어적으로 바뀌어서(Sondernegation → Negation, NEG- Primärfunktion(Negierung), Sondernegation → Privation, NEG- Sekundärfunktion), 각각의 관점들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을 뿐이다. 의사소통적 관점에서의 부정의 해석 또한 의미론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든 예문 (13)-(16)이 잘 보여준다.

4. 맺는 말

부정현상과 관련하여 문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이분법 전체부정/부분부정은, 통사적 관점이 아닌 여러 다른 시야에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수많은 연구들에서도 역시 여전히 건재한다. 단지 명칭만 바뀌고, 달리 해석되었을 뿐이다. 의사소통행위를 하는 대화 당사자들 관계에서 부정을 설명하는 이들도 부정어 nicht가 지닌 의미범위들의 분류를 위해 전체부정/부분부정의 이분법을 암암리에 답습하고있다. nicht의 문장 안에서 올 수 있는 위치들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리학에서의 부정(언제나 전체 서술의 술어가 부정되는 하나의 부정형식만이 존재하는)설명에

22) Zemb, Z. M.(1972): Satz - Wort - Rede. Freiburg/Basel/Wien. 26쪽 이하, 36쪽 이하 참조.

서와는 달리 일반언어에서는 같은 위치를 차지한 부정어 nicht를 지닌 부정문에서 nicht는 여러 영역들에 관계할 수 있다. 일반언어에서는 문장은 단지 하나의 명제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의미적-논리적 명제들이 한 문장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제들 모두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구성소들을 지닌 부정문이 서로 다른 서술을 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정에 관한 서술은 이와 같이 문장이 포함할 수 있는 수많은 의미적-논리적 명제들 중 어떤 것에 부정어 nicht가 관계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때 문장의 어느 곳에 부정어 nicht가 위치할 수 있으며, 있어야 하는가 또한 설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부정문에서 보여주는 nicht의 통사적 특징만이 아니라, 문장에 주어진 강세 그리고 실제적인 언어행위관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Brütsch, E.(1986): "Was heißt hier negativ? Zur linguistischen Untersuchung von drei Gegenstandbereichen der Negativität."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4. S.192-203.

Duden(1966/1984):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ssprache. 2. und 4. Aufl. Mannheim.

Falkenberg, G.(1985):"Negation und Verneinung." In: W. Kürschner/R. Vogt(Hg.): Sprachtheorie, Pragmatik, Inderdisziplinäres. S.141-150.

Heidolph, K. E.(1970): "Zur Bedeutung negativer Sätze." In: M. Bierwisch./K. E. Heidolph.(Hg.): Progress in Linguistics. Den Haag. S.86-101.

Heinemann, W.(1983): Negation und Negierung. Handlungstheoretische Aspekte einer linguistischen Kategorie. Leipzig.

Helbig, G.(1985): "Bemerkung zu einigen Problemen der Negation im Deutschen." In: Linguistische Arbeitsberichte 47. S.56-65.

Helbig. G./Albrecht, H.(1990): Die Negation. 5. Aufl. Leipzig.

Helbig, G./Buscha, J.(1970/1991): Deutsche Grammatik. Ein Handbuch für den Ausländerunterricht. 13. Aufl. Leipzig.

Klima, E. S.(1964):"Negation in English." In: J. A. Fodor/J. J. Katz.(Hg.): The Structure of language.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S.264-324.

Lee, S. W.(1999): Die Negati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Eine konfrontative Untersuchung. Bochum.

Nussbaumer, M./Sitta, H.(1986): "Neuere Arbeiten zur Negation im Deutschen." In: Deutsche Sprache 14. S.58-84.

Sennekamp. M.(1979): Die Verwendungsmöglichkeiten von Negationszeichen in Dialogen. München.

Stickel, G.(1970): Untersuchungen zur Negation im Deutschen. Braunschweig.

ders.(1975): "Einige syntkatische und pragmatische Aspekte der Negation." In: H. Weinrich.(Hg.): Positionen der Negativität. München. S.17-38.

Weinrich, H.(1975): "Über die Negation(en) in der Syntax und Semantik." In: H. Weinrich.(Hg.): Positionen der Negativität. München. S.39-63.

Zemb, G.(1972): Satz - Wort - Rede. Freiburg/Basel/Wien.

Zusammenfassung

Zwei Arten der Negation im Deutschen

Lee, Sang-Wook(Korea Univ.)

Die Negation im Deutschen wird in der Tradition, besonders aus dem syntaktischen Aspekt, in zwei verschiedenen Arten unterschieden: Sondernegation(Wortnegation oder Konstituentennegation) vs. Satznegation. Demzufolge bei der Satznegation bezieht sich das

Negationswort auf die gesamte Aussage, d.h. die vom gesamten Satz ausgedrückten Propositionskomplexe und bei der Sondernegation auf Teile des gesamten Satzes. Diese Unterscheidung wird hauptsächlich durch die Stellungsmöglichkeiten von 'nicht' begründet. Sie wird aus kommunikativ orientierten Aspekten problematisiert. Solche Ansätze gehen davon aus, daß die Negation eine Blockierungsoperation bei der Bearbeitung bereits vorhandener Kenntnisse ist. Aus kommunikativ orientierten Aspekten wird nur bei der Satznegation von 'Negierung' gesprochen, und bei der Sondernegation liegt nur eine negierte Teilstruktur vor, die den Chakrakter der Affirmierung des Gesamtsatzes zwar modifiziert, aber nicht aufhebt.

Als vorlaüfiges Fazit stellt man fest, daß die Beschreibung der Negation aus kommunikativ-pragmatischen Sichten die Unterscheidung Satznegation/Sondernegation nicht überflüssig macht. Um die Negation besser zu ermitteln, werden nicht nur unterschiedliche syntaktische Stellungsmöglichkeiten von 'nicht' berücksichtigen, sondern auch die im Satz verschieden gegebene Intonation und auch kommunikative Handlungszusammenhänge.